

한국 학계로부터의 목소리를 경청함*

— 계승범 교수의 『이역을 상상하다』에 대한 논평에 답하며

거자오광**

(이연승 역)***

몇 해 전에 서울대 이연승 교수가 『이역을 상상하다』의 한국어 번역본 출간을 결정했을 때, 나는 한글판이 나오면 특히 한국 학계의 비판을 기대한다고 했다. 따라서 나는 한글판 서문에서 “이 글은 2001년 이후 내가 여러 조선시대 연행록을 읽은 뒤의 성과이기 때문에 마땅히 연행록의 조국인 한국에서 독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 학자로서 조선 왕조의 사료를 사용하고 조선 시대의 사상을 논하며, 한국에서 한글로 출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소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마치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이역을 상상하다』의 마지막 문장인 「이웃의 눈을 빌려 동아시아와 중국을 재조명하다」에서 말했듯이, 중국인 학자들 중에는 “일본어나 한국어를 잘 할 수 있는 학자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저 한문으로 된 연행 문헌을 읽을

* 이 글은 上海《文汇报》“文汇学人” 公众号(2020. 3. 16.) 온라인 상에 게재되었으며,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역자가 저자와 논의하여 다소 수정하였다.

** 葛兆光, 푸단(復旦)대학 역사학과 특별초빙교수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부교수

뿐, 과거 한글이나 일본어로 된 문헌을 참고할 수도 없고 현대의 한국과 일본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다.”

이는 당연히 중국 학자들의 문제이며, 나로 하여금 치엔종슈(錢鐘書) 선생이 당시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시로 원망할 수 있다」(詩可以怨)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면서 시작했던 말 — “나는 일본어를 전혀 모르니 귀국의 한학(漢學) 보고(寶庫)를 대면하고는 마치 번호기도 모르고 문을 열 도 구도 없는 ‘빈털터리’와 같아서, 커다란 금고 앞에서 그저 눈만 크게 뜨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을 떠올리게 하였다. 이 말에서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꾸기만 하면 지금 내가 느끼는 바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치엔종슈 선생이 겸손하게 표현하신 것이라면, 지금의 중국 학자들은 정말로 ‘빈털터리’다. 다행히 치엔종슈 선생은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고, ‘비를 피할 처마를 찾지 못할 때에는 막대기로 천을 받치고 있는 것이 스스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 마디 덧붙이셨다. 중국 학자들이 ‘긴 막대기로 천을 받쳐서’ 우산으로 삼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비교적 익숙한 한문으로 된 연행 문헌을 되도록 많이 읽고, 우리가 보다 익숙한 중국 문헌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분명히 한국 학자들은 중국 학자들의 궁색한 상황에 대하여 다소 배려를 하고 있고, 한국의 연구 성과를 잘 알지 못하고 한국어로 된 문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관대함을 갖고 있다. 이번에 계승범 교수가 쓰신 매우 격식을 갖춘 서평을 보고 특별히 이런 점을 느꼈다. 이 서평을 읽고 그의 이해에 매우 감사하며, 또 그의 일부 주장에 매우 찬성한다.

나도 그의 논평을 빌어 나의 의견을 말해보고자 한다.

1.

우선 중국(한국을 포함)에 대한 비판에 나는 매우 찬성한다. 그는 “중국의 한족 지식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데에 익숙하

다. 자기를 상대화할 기회도 없고, 심지어 자기를 상대화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은 문명 수준의 격차가 워낙 현격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역사상 두 번의 중요한 시기를 지적하였다. 하나는 ‘주객이 전도된’ 남송 시기로서, 본래 이러한 화이관념이 바뀔 수도 있었으나 주희(송대 이학을 포함)는 ‘더욱 중화적인’ 방안을 택했다. 다른 하나는 만청 시기로서, 당시에는 ‘중체서용’인가? 아니면 ‘서체중용’인가? 하는 논쟁도 있었지만, “중화 중심적 태도는 여전히 견고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중국 학계는 “중국과 관련된 엄청난 양의 외국 자료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사 연구가 “중국을 상대화”할 “외부적 관점”을 결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계승범 교수는 중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한국 역사 연구의 단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면서, 식민지의 역사적 기억으로 인하여 한국의 민족주의적 역사 서술은 여전히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1980년대 이전의 “식민지 경험에서 비롯된 반외세적인 민족주의의 역사적 서술은 항상 ‘내재적 발전 요인’과 ‘외부적 저해 요인’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내가 이해하기에 소위 ‘내재적 발전 요인’이란 역사 연구는 한국 자체 내에서 근대화로 나아가는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고, 소위 ‘외부적 저해 요인’이란 서구의 열강과 제국주의가 한국의 근대화를 방해했던 배경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페어뱅크(John K. Fairbank)의 ‘충격 — 대응’ 이론에 대한 중국 역사학계의 습관적인 부정과 ‘서양이라는 요인이 없어도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생겨날 수 있었으리라는’ 필연적인 결론을 떠올리게 한다. 아마도 역사가 남긴 이러한 심리와 관념은 ‘상황은 달라도 효과는 똑같다’는 말, 그리고 ‘마음이 같으니 이치도 같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십여 년 전 제기한 “주변으로부터 중국을 보자”라는 연구의 사고 방식, 그리고 그 후에 쓴 『이역을 상상하다』라는 저서는 사실상 ‘역사적 중국’을 대상화하려는 것이다. “타자와 자아를 재정립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주변에 있는 각 지역의 중국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역사적 중국’·‘문화적 중국’·‘정치적 중국’을 새롭게 인지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내가 복단대학 문사연구원의 2007년 출범식에서 했던 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중국을 새롭게 이해한다는 것은 ‘서구’라는 배경과 척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한국과 일본·몽골·미얀마·베트남·인도·러시아 등)의 시각과 입장을 함께 참고하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주변 각국의 ‘중국’에 대한 사료를 광범위하게 발굴하고 사용하려면 과거 ‘한자권’이었던 한국과 일본 및 베트남 문헌의 발굴과 사용은 물론, 몽고어·티벳어·위구르어·미얀마어·태국어 등의 비한문 사료를 발굴하고 사용해야 한다. 중국을 직접 논하는 문헌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다루지 않지만 중국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문헌(예를 들면, 조선과 일본 사이의 통신사 문헌)까지도 참고해야 한다. 후스(胡適)가 중국을 대표하여 1938년 스위스 취리히 국제역사회의에서 발표했던 글을 나는 일찍이 몇 차례 인용한 바 있다. 후스는 “근래 발견된 중국 역사에 관한 새로운 자료”라는 제목의 영어 논문에서 이미 ‘일본과 조선이 보존하고 있는 중국사료’를 중요한 발견의 하나라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다. 셋째,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헌을 사용하여 중국을 관찰할 때, 가능한 그 맥락 안에서 동정적으로 그들의 중국관을 이해해야 하며, 어떤 가치관념의 차이로 인하여 그 서술을 오해나 편견이라고 취급해서는 안 된다. 오해도 일종의 이해이며, 편견은 어떤 관념을 더 잘 드러내준다.

사실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예전에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자아인식은 세 단계를 거친다고 말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자기 상상’의 단계로서, 늘 중국은 ‘천하 제국’이고 주변은 그저 염두에 둘 필요도 없는 오랑캐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는데, 그런 극단적인 자부심에 가득 찬 천조주의(天朝主義)는 중앙 제국의 강성함과 조공 체계의 덕분에 중국의 자기 인식을 일관되게 지배해 왔으며,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

아 있다.

둘째는 만청 이후 서방의 ‘견선리포’(堅船利砲)로 인해 중국인들은 천조(天朝) 외에 열강이 있으며, 그 열강은 심지어 중국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만청에는 당시 서방이 중국의 ‘삼대의 다스림’과 같다는 설이 있었다). 그리하여 서양은 중국인들이 자기를 인식하는 거울이 되었고, 중체서용이든 서체중용이든, 중외비교든 동서비교든, 심지어 역사학에서의 시대분할과 사회단계도 기본적으로 모호하고 불분명한 ‘서구’라는 잣대로 중국을 헤아려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것은 바로 서양이라는 잣대 외에도 우리 ‘이웃의 눈’이 있으니, 이웃의 눈을 통해 중국을 재조명하고, 이 역사상의 세부적인 차이들이 나중의 커다란 분기점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말하던 “화이변태”의 시대든, 조선에서 말하던 “소중화”의 문화관이든, 베트남에서 말하던 “북쪽의 도적을 방어하라”는 역사관이든, 우리는 모두 존중하면서 각자의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에서 하나의 입체적인 중국을 새로이 고찰하기를 희망한다.

특히 중국 학자로서 계승범 교수가 지적한 문제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변으로부터 중국을 보는’ 방법을 통하여, 즉 관찰자의 ‘주객 바꾸기’를 통해 이미 생명력이 다한 ‘천조주의’를 줄이고 새로운 ‘중국 중심주의’로 부활하기를 바란다. 말한 김에 덧붙이자면 한국의 백영서 교수는 내가 일방적으로 “주변으로부터 중국을 보자”고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중국 중심적이라고 여겨서, 특별히 ‘이중 주변’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사실 백영서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나와 아무런 모순도 없고, 나는 “주변으로부터 한국을 보자”나 “주변으로부터 일본을 보자”라는 관점에 반대하지 않는다. 모든 국가의 학자들이 역사를 볼 때 누구나 하나의 입족점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의 관점이 전지전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역사가가 한 국가의 역사를 논할 때, 다른 국가들은 타자의 시각을 제공하는 ‘주변’이 되는 것이다. 내가 “주변으로부터 중국을 보자”고 강조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나의 연구 영역이 중국(물론 어떤 때는 동아시아도 논하지만)이라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목적이 ‘중국 중심주의’의 역사적 방법에 대한 반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는 마땅히 학계의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다.

계승범 교수는 『이역을 상상하다』라는 저서의 우수함은 시각의 전이와 자료 섭렵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칭찬은 과분하지만, 우리의 이런 의도와 노력이 분명히 계승범 교수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그의 사고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일치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계승범 교수의 서평에서 그는 나와는 다른 몇 가지 견해를 제기하였다. 나는 그의 의견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도 약간의 응답과 해명을 하고 싶다.

중국과 한국어의 어경(語境)에서 ‘재결’(裁決)과 ‘상상’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중국어 어경에서 ‘재결’은 마치 판사가 사실에 근거해 ‘유죄’나 ‘무죄’라고 못 박는 최종적인 판결어와 같아서, 상당히 법률 용어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용어의 중국어 의미에 따르면 조선의 연행사들이 대청제국의 출사경력을 거쳐서 비로소 청나라의 정치와 문화에 대한 자신들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물론 조선 연행사 문헌에는 청나라의 정치와 문화에 대한 평론이 종종 눈에 띄는데, 나는 『이역을 상상하다』에서도 그들이 종종 ‘호황’·‘만이’·‘비린내 나는 땅’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청나라를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행사들이 법관과 같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재결’을 한다기보다는 감정과 온도를 가진 ‘평가’를 했던 것처럼 느껴진다. 그들이 ‘재결’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조선이 약세에 처해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거나, 천조에 저항할 능력이나 천조를 재결할

권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하게 사실을 고찰하고 나서 면밀히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은 종종 ‘화이변태’라는 관념을 미리 품은 방관자처럼, 청나라 강역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리쿵저러쿵 함부로 비평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평가는 선택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위대한 명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청나라를 경멸하는 감정은 종종 그들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 내가 『이역을 상상하다』에서 말한 몇몇 사례들, 예컨대 당 자제천(堂子祭天), 계문란(季文蘭) 이야기, 호한의관(胡漢衣冠) 등에 관한 이야기는 대체로 사실만으로 이루어진 ‘재결’이 아니라 감정에 따른 ‘평가’로서, 이러한 평가를 하면서 그리 많은 ‘사실’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매우 많은 ‘상상’을 담고 있다. 물론 내가 책에서 말했듯이, “상상의 이면에는 또 너무 많은 역사가 있으며, 너무 많은 감정이 숨어 있다.”

그러므로 청나라의 문명에 대한 ‘재결’이라고 하면, 조선 연행사의 이 ‘재결’은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감정적이기 때문에, 진술하거나 목격한 것이 반드시 사실인 것도 아니며, 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더욱이 종종 ‘상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청나라 황제가 정월에 했던 당자에서의 제사는 샤먼의 제천 유풍에서 유래한 것임을 지금은 모두 알고 있지만, 이를 목격한 조선의 연행사들은 왜 등 장군이나 유정(劉綎)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라고 연상했을까? 계문란의 이야기는 조금 자세히 고증해 보지만 해도 강희제가 오삼계를 평정했던 때의 일임을 알 수 있는데, 진자점을 지났던 그 많은 조선의 연행사들은 왜 모두가 그것을 명·청 교체기의 슬픈 이야기라고 상상했는가? 제주 외곽의 남녀 조각상은 도대체 안록산과 양귀비인가? 아니면 배여해(裴如海)와 반교운(潘巧雲)인가? 왜 두 개의 상을 본 거의 모든 조선의 연행사들이 그것을 안록산과 양귀비로 여기고, 그 괴이한 제사의 습관을 화이변태와 연결시켰는가? 내가 책에서 말했듯이, “상상과 소문은 감정과 관념의 영향을 받아 편향과 편견을 면치 못하며, 심지어 사후의 기억까지도 마치 요술거울에 비추어보듯 일그러지

고 변형이 된다. 조선 양반 사인들의 대청제국에 대한 멸시와 편견으로 인하여 그들의 상상은 의도치 않게 추악함과 폄훼에 치우쳤고, 소문도 항상 청나라에 불리한 말만 선택하였다.”

사실 나는 연행사 문헌에 다른 요소들, 즉 “견문, 기억과 상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이 점은 제1장에서 이미 분명하게 밝혔다. 이러한 연행사 문헌에는 진솔하고 자세한 기록(예컨대 청나라 황제의 형상에 대한 기록은 중국 문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이 있으며, 이는 역사의 세부 사항을 풍부하게 해준다. 계속 이어지는 전언이나 인용 등(많은 연행사 문헌 내용은 서로 답습한다)도 있는데, 이런 부류의 전술은 조선 사대부의 인지적 전통을 반영한다. 청나라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상상도 있는데, 그것이 꼭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청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조선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다시 말해서 “견문”은 연행사의 실록이고, “기억”은 앞선 시대 사람들의 서설과 문헌에서 온 것이며, “상상”은 대물림되어 이어지는 가치 관념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국의 문명과 문화에 대하여 추측한 것이다. 중국 고대의 “도끼를 잃어버리고는 이웃이 도끼를 훔쳐갔다고 여기고 이웃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도둑이 낚새를 채는” 이야기처럼, 일단 “선입견”이 생기면 눈에 보이는 것마다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갖가지 연상과 상상이 일어난다.

계승범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은 정말로 옳다. 조선시대의 연행사들은 “‘청 = 이적’이라는 견고한 ‘화이분별’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철저히 무장시킨 뒤에 사행길에 올랐다.” 따라서 계승범 교수가 물었듯이 “청조의 문화와 풍경이 과연 객관적으로 그들의 시야에 들어올 수가 있었겠는가?” 그들이 결코 객관적이지 못했다면, 그들의 묘사 가운데 많은 것은 단지 선입견(이 선입견이라는 말에는 폄하의 의미가 없고,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전이해’, 즉 이해와 해석 이전의 ‘예설’(豫設)과 유사하다)에 의한 상상이었던 것이다.

나와 계승범 교수는 조선의 연행사들이 처음부터 “청은 이적이라는 절

대적인 정답”(계 교수의 용어)을 가지고서 청 제국에 들어가 관찰하고 기록했으며, 그들은 “가감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느낌을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편견을 가진 “일방적인 상상”일까? 아니면 먼저 결론을 내린 “당위적 재결”일까? 나는 그것을 ‘상상’이라고 불렀고 계승범 교수는 ‘재결’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3.

가장 의심스러웠던 것은 조선 왕조와 명 왕조의 관계에 대한 계승범 교수의 판단이었다.

계승범 교수는 조선이 명 왕조를 인정하는 것은 만력황제가 임진왜란 때에 조선을 도와 왜구를 물리치도록 하여, ‘재조의 은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조선과 명나라가 형성한 “혈맹관계 혹은 사대의 의리”는 주로 “명나라는 한족이 사백년 후에 새로이 중원을 정화하여 건립한 것이고, 따라서 매우 특별한 중화제국(中朝)이었기 때문이었다. 명나라는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라 주—한—당—송을 잇는 유교적 중화문명의 후원자, 즉 중화문명국이자 천자의 나라”라고 하였다. 즉, 계승범 교수가 말하는 중화문명의 기초인 ‘종족’·‘공간’·‘문명’의 세 가지 중에 조선 왕조에게는 명나라가 한족이자 중국이며 정통 유교문명이기 때문에 조선 왕조는 명나라에 대하여 절대적인 승인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조선 왕조 이전의 고려를 예로 들며, 중원 왕조를 인정할 때 “황제국(천자국)이 자주 바뀌어 고려와 종번(宗藩) 관계를 맺었던 중원제국은 모두 후량·후주·송·요·금·원·명의 일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 왕조 시대에는 주자학을 국시로 하였고 화이관념이 견고하였기 때문에, 16세기 이후 조선인들은 이미 충효에 기초한 군신-부자 관계를 이념화하였고,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명나라와 조선은 이미 단순한 군신관계를 넘어서 부자관계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다른 한국 학자들이 이런 말에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학자로서 이에 대해 약간의 의문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주장이 통할지도 모르지만, 고대든 전근대 또는 근대이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사실 주로 의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현대의 속설처럼 정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한다. 조선 왕조와 중화 제국은 오랜 시간과 문화를 공유했지만(일본과도 마찬가지로, 한자·불교·유가·율령제 국가 등의 공통점이 있다), 조선 왕조는 처음에 나라를 건립했을 때부터 주변에 있는 이 거대한 명 제국에 대해 의구심과 경계를 품었다. 소위 ‘사대’라는 것은 중화문명에 대해 흠모하는 면이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안전과 무역과 같은 것)적으로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던 면 때문이다. 우리가 역사 문헌을 보면 명나라의 천조의 패권과 거대한 위협이야말로 조선의 군신이 ‘사대’(事大)를 결정하는 관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시기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다.

첫 번째 사례는 명대 초기의 일이다. 홍무 22년(1389) 이성계가 고려의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으로 바꾸어 세우고는 사신을 보내어 해명하였다. 주원장은 고의로 사신을 거절하고, “지금의 신하가 그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아들을 세우고서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나, 이는 몇몇한 인륜을 크게 훼손시킨 것이며 군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니”, 명나라는 간섭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표했을 뿐이었다. 1392년에 이성계가 정말 고려를 대신하여 조선을 건국하자, 주원장은 또 협박과 유린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이성계의 조선 건국의 합법성에 대해 거듭 의문과 비난을 퍼부었고, 조선에서 파견된 사신들을 백방으로 괴롭혔다.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없고 나라에는 두 군주가 없으니 너는 대명이 너의 종주국임을 알아야만 한다고 하면서, “해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떨어지겠는가? 천하에는 하나의 해가 있을 뿐이니, 해는 속일 수 없는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그는 당근과 채찍을 겸용하는 방식으로 조선을 강제로 통제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국왕들도 내

심으로는 사실 명 태조에게 상당한 불만을 품었다. 정중은 즉위 초에 주원장을 비판하여 말하기를, “영웅(英雄)과 공신(功臣)을 의심하고 꺼리어 남당(藍黨)이니, 호당(胡黨)이니 지목하여 모두 죽였으니, 불가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定宗恭靖王實錄 己酉 元年 기사). 특히 명나라가 사서(史書)에 ‘참위’(僭位) 혹은 ‘찬위’(篡位)라는 말을 사용하여 조선이 고려를 대신한 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성계는 매우 원망하였다. 태종은 명나라 영락제가 쓴 「평안남조」를 보고 일찍이 신하들에게 조선은 명나라에게 겉으로만 공손한 체 하는 식으로 주변의 이 강력한 이웃나라에 대처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단지 현실적인 측면에 착안하여 어쩔 수 없이 사대의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太宗實錄 第27卷 14年 6月 辛酉 기사).

두 번째 사례는 영락제 시대다. 영락 원년(1403) 주체(朱棣)는 예부로부터 하여금 조선의 왕에게 “군신 사이와 부자 사이에는 보통 효도하고 도리를 아는 아이들이 있고, 오역불효(五逆不孝)하며 도리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고 전하게 하여, 조선 국왕에게 효순함을 알아야 한다고 협박하였다. 이어 원 세조를 본떠서 조선 태종세자로 하여금 명 황제의 딸을 맞아들이게 하였고, 조선에게 대명황제를 위하여 궁녀가 될 여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다면 조선 측은 어떠한가? 그들도 그다지 ‘효순하고 예를 잘 지킬’ 필요는 없었다. 조선의 태종은 명나라의 「평안남조」를 보고 영락제가 번속국인 안남을 정벌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몇 해가 지난 후에 수하의 관원에게, “근래 황제가 북정(北征, 즉 몽고를 정벌한 일을 말함) 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곧 문정(門庭)의 적이라 하니, 일은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번 안남(安南)에 출정한 것은 황제의 실책이었다. 스스로 우리 동방을 생각하면, 땅은 메마르고 백성은 가난하며 국경이 중국과 연결하였으므로,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사대(事大)하여 한 나라를 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만약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곡식을 축적하고 병사를 훈련하여 봉강(封疆)을 고수(固守)함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뒤의 두 마디가 매우 중요한데, 바로 “토끼가 죽으니 여우가 슬퍼한다”는 것으로, 그는 안남의 사례를 보고 조선을 생각하면서 정복당할 수도 있는 운명에 대하여 경계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취할 수 있는 책략은 “마음을 다하여 사대하여 이 나라를 보존하자”는 것이었으나, 만약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는 조선도 군사를 훈련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던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명대 중후반이다. 사실 우리는 각종 ‘조천록’에서 조선 사대부가 북경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만을 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의 조천사신이 북경에 가서 온갖 비난과 협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명대의 천사(天使)가 조선에 가서도 똑같이 권세를 부리고 사기치고 협박하여 재물을 강탈하였으니, 흥미 있는 독자라면 내가 쓴 「천제 5년에 조선에 갔던 천사」를 참조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렇게 위협과 억압을 받고 갈취와 사기를 당하며, 천사들이 함부로 권세를 부리는 것을 목도했던 조선의 군신이 명나라에 대하여 군신이자 부자임을 진심으로 인정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특히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네 번째 예인데, 17세기에 명·청 교체를 앞두고, 조선의 광해군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책략을 취했다. 광해군 이혼(李璵, 1575-1641)은 명나라와 ‘사대’관계를 유지하면서 후금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 목적은 조선이 명나라와 금나라의 충돌 사이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는 책략은 정치적 고려와 문화적 정체성 사이에서 조선의 군신들이 균형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에 ‘인조반정’으로 ‘사대친명’(事大親明)의 전략을 다시 취했지만, 황태이지의 조선출병(1637) 이후 광해군은 조선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실과 타협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명나라와 “기존에 맺었던 군신 관계에 부자의 관계까지” 더 맺었고, 어떤 이들은 만청에 투항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광해군의 타협은

‘사대’(事大)의 감정인 것 같아도 여전히 왕위를 물려주고 조선을 온전히 보존하려는 이성적인 선택이었다.

문화사와 사상사학자들은 외교 관계 속에서 문화적 이상주의에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정치사와 외교사학자들은 정치상의 현실적 책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사실 계승범 교수도 “단순히 대의(大義)나 재조의 은혜로는 조선 사신이 연행록에 남긴 수많은 청나라에 대한 비하와 명나라에 대한 흠모의 기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명나라에 대한 ‘사대’는 현실적인 책략이 절반이고, 문화적 동일감이 나머지 절반이었을 것이다. 이 시대의 역사에 대한 나의 이해는 명나라에 대한 이 문화적 동일감이 처음부터 존재했다고 해도, 참으로 심각한 ‘사대의리’가 절대적인 ‘가치판단’이 된 것은 임진왜란의 ‘재조의 은혜’ 및 명·청 교체기의 ‘중화가 이적으로 변한’ 후에 비로소 조선 군신의 마음속에서 점차 돌출되었으며, 조선과 청조 사이에 ‘정치적 승인’(책봉과 조공을 거쳐서 종주국과 부속국 신분을 유지함)과 ‘문화적 동일감’(명대의 문화에 대한 경모 및 청대 문화에 대한 멸시)의 분리가 생겨났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조선의 사신이 청대 북경에 출사했던 기록은 더 이상 “조천”이 아니라 “연행”이다.

4.

나는 조선시대의 연행사 문헌을 논할 때 ‘연행’(燕行)이라는 글자가 붙지 않은 문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계승범 교수의 비판에 찬성한다. 또, 조선연행사가 과연 얼마나 중국을 잘 알고 있었는지, 아마도 그들에게 “중국은 곧 베이징”이었고, 더 많은 중국에 대하여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연행록에 대한 엄격한 사료 비판이 있어야 한다”는 계승범 교수의 말에도 나는 찬성한다. 조선연행사와 통신사들에게 있어서 “청

나라 질서 하의 조선은 매우 교조적이고 이념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의 기록에 대해 경계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에도 나는 매우 동의한다.

그러나 중국 학자로서 나는 동아시아사나 중국사 연구에서 자기비판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한국 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특히 기대한다. 역사상의 중국이 동아시아의 정치와 문화, 경제를 뒤덮는 지위와 거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반드시 의심과 비판, 분리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는 우리가 “중국 중심주의” 및 어떤 형태의 “천조적 입장”이나 “천하주의”도 경계해야 할 뿐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분석에서 화하문화와 중화제국의 핵심적 역할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유가·한자·불교·율령제라고 하면 모두 중국에 기원을 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은 선생이고 다른 나라는 항상 학생이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동아시아 각국이 공통으로 형성하고 향유하는 정치문화라고 볼 수는 없을까? 또 문화적 일체감을 거론하면 늘 다른 나라들이 중화제국에 대한 공감과 흥미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일방적 공감이라는 역사적 견해는 역사상 ‘화이유별’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조공체제라고 하면 당연히 이는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라고 생각하지만, 동부아시아 해양은 정치든 경제든 모두 중국이 주도하던 역사 세계인가?

중국에서 늘 습관이 되어버린 이러한 역사적 관념을 바꾸기 위하여, 나는 『이 중국에 거하라』와 『이역을 상상하다』 등의 책에서 이하의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기했다.

우선 한당 이래 동아시아에 공통된 문화권이 있다면, 이는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가 공동으로 빚어낸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화권은 “같으면서도 그 안에 다름이 있고”, 적어도 17세기 이후에는 이미 “점차 멀어져서”, 이 문화권은 실제적으로 점차 붕괴되어갔다는 사실을 마땅히 설명해야만 한다.

둘째, 17세기 중엽의 명·청 교체는 확실히 중국사와 동아시아사, 심지어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비록 나는 한족 통치하의 명대 문명이 만주족 통치하의 청대 문명보다 더 높거나 혹은 더 정통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조선과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중국은 이미 “화이변태”의 상황이었다. 이는 비단 일본형 화이관념과 조선의 소중화 관념을 부채질했을 뿐 아니라, 조선 연행사 문헌 가운데 청대의 중국에 대한 각종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들은 오히려 우리가 청대 중국의 어떤 측면을 더 깊이, 더 사실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책봉 — 조공권에 속하지 않았던 일본이든, 아니면 양쪽에 속해 있던 류큐이든, 아니면 가장 밀접한 부속국인 조선 및 시종일관 북쪽의 도적에 대하여 탄 마음을 품고 있던 조공국 안남이든, 이때에는 모두 점차 ‘정치적 승인’과 ‘문화적 일체감’의 분리가 일어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각 국가들이 여전히 중국을 종주국(일본 제외)으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중국 문화는 더 이상 정통적이고 우수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동아시아의 소위 ‘자국중심주의’는 이러한 “정치”와 “문화”의 분리 하에서 자생하고 팽창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청대의 중국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동아시아 혹은 조공권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페어뱅크의 이론이 구식이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대체로 여전히 찬성한다. 전통 제국에서 근대국가로의 어려운 전환 과정에서 분명히 (서방) 충격 — (동아시아) 반응의 관건적인 작용이 있었음에 동의한다. 서구의 충격으로 인하여 “각자 서로 다른 반응”이 생겼는데, 각자 다른 ‘반응’을 했던 이유는 “점차 더 거리가 생겼던 것”, 즉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점차 다른 정치·사회·문화배경을 형성했던 것과 크게 연관이 되며, 이 차이야말로 각국의 현대적 전환과정에서 차이가 생기게 만들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나의 이러한 생각들 및 중국 학자로서의 자기반성과 비판이 계승범 교수와 한국 학자들에게 찬성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2020年 3月 13日 동경대학에서 씀.